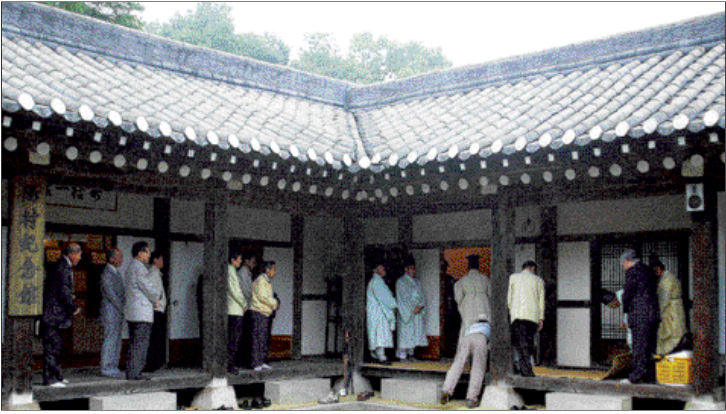


음성군 방축리 안숙공부조묘 기신제 기제일을 종중총회일로 하기로



▲ 안숙공 기신제를 추원재에서 봉행하고 있다.



▲ 권인식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추밀공과 시조후 17세로 양촌 문충공의 넷째아들인 안숙공(安肅公) 휘 준 의 불천위 기신제(忌辰祭)가 5월 23일 토요일 11시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 묘역하에서 봉행되었다. 불천위 기신제는 신주(神主)를 4대가 지나 친진(親盡)을 하여도 체친(遞遷)하지 않는다는 뜻의 부조묘(不廟)에서 지내는데 안숙공의 부조묘 사당이 남아 지붕이 새어 차일로 덮여 임시변통하던 터에 금년 음성군에서 도비로 이를 헐어내고

중건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어서, 그 신주를 옮겨 모셔놓은 재사(齋舍) 추원재(追遠齋)에서 받들게 되었다.

이 기신제를 몇해 전에 자정(子正)의 심야행사에서 같은 날짜의 평명(平明)행사로 바꾼 이

래 이날 참제원이 가장 많이 와서 20수명에 이르렀다. 이는 안숙공종회의 권병홍(權炳洪) 종회장이 이날 제향에 이어 종중의 총회를 겸한다는 통문을 각처에 보낸 결과였다. 그 통문 요지는 ‘3만을 헤아리는 후손중에 제향에 겨우 2,3인이 참석하는 형편이니 말이 되는가. 행사를 심야 자정에서 익일 평명으로 바꾸었는데도 참제자는 10인을 넘지 못한다. 부조묘 사당을 수년 전에 수리하였으나 2년 전부터 뒤쪽지붕이 내

려앉아 누수되어 천막으로 가렸던 것을 이번에 상급 문충공종회와 음성군의 배려로 중건케 되어 4월 30일에 상량식을 하였는데 자손은 겨우 3인이 참석하니 면목이 없었다. 이번 기신제 행사 후에는 종중의 총회를 열어 안숙공종회의 제반현안을 토의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간곡히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통문을 150여통 이상 보냈던 바 계파 문중 가운데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곳이 허다하여 그나마 참석자가 20수인에 이르기조차 바빴던 것이다.

행례의 초헌관은 대전에서 온 마전공계 송화공(松禾公) 문중의 권인식(權仁植)씨가 맡아하고 아헌관은 마전공계 초루공(草樓公) 문중의 권병규(權炳奎)씨가, 종헌관은 송화공 문중의 권형신(權炯信)씨가, 그리고 축관은 초루공계의 본지 편집인 권오훈(權五煥)씨, 집례는 송화공계인 종회장 권병홍(權炳洪)씨가 분정되어 행하였다.

행례를 필하고는 추원재의 정당에서 종회의 총회가 열렸다. 주의제는 부조묘 중건에 따른 삼문(三門) 및 계단 신축과 주변정리와 종회의 기본적인 운영 문제였다. 부조묘는 사당 본채만이 목하 중건으로 신축되고 있다. 그러나 불품없이 퇴락해가는 삼문과 그 앞의 석축 계단을 개축해야 하고 담장 등 주변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사당을 신축하는 김에 이를 병행하여 같은 시공

자에게 시키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고 공사도 효율적으로 마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어떻게 염출할 것인가. 종회에는 기금이 전혀 없고 소규모나마 재정이 현재 적자 상태이다. 계파별로 배당하여 비용을 각출하고 모금을 하여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안은 역시 무망이었다. 우선 각 계파 문중 가운데 거개가 불참하고 두세 계파에서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를 해 봐야 의미가 없고, 더구나 다소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문중에서는 전혀 참석을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존에 오던 사람 외에 이번에 모처럼 참석하게 되어 영문을 잘 모르는 자손들이 태반인데 모금 이야기부터 하여 부담이나 준다면 다음부터 불참자가 나올 것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참석자가 많아진 연후에 이런 일은 의논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의안은 철회되고 그대신 안숙공 묘역이 양촌선생 묘소와 함께 도지정 문화재로 들어가 이번에도 부조묘를 중건해 주는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도군 당국의 추가 배려를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다음 종회의 기본 운영 문제는 전래로 안숙공종중 뒤편으로 내려오던 위토 등 종재가 큰 종중으로 병합되어 있어 별도 재정을 확충할 수가 없다. 또 위토 등 종재 분리도 등기가 대중종으로 되어 있으니 무망이다. 당장 명시적인 대책이 없는만큼 우선 종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임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여 새로이 부회장으로 창수공계 송파공(松坡公) 문중의 권영걸(權寧傑)씨와 음죽공계의 권태서(權泰瑞)씨를 보선하였다. 수십년 전에 대중중에서 산지를 분할 매각하여 현재까지 타산에 존치되어 있는 안숙공 묘소 능선 너머의 안숙공의 증손자 부사공(府使公)(20世 福福) 묘소는 재사 바로 우강右崗에 있는 안숙공의 차남이자 부사공의 조부인 마전공(麻田公)(18世 堧念) 묘소 계하로 이장하기로 하였다.

총회를 마치고는 모두 재사를 나와 주사(廚舍)로 내려와 점심 음복을 하고 나서 다시 묘소로 올라가 문중공 이하 안숙공 및 3대묘소에 성배를 하고 귀로에 올랐다.

<사진·글 권奇允>



▲ 행례 후 안숙공종회의 총회를 열고 있다.

물론 권혁무씨도 듣고 전하는 것으로서 사실이 그렇다는 설명이었으나 이에 대해 좌중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었다.

경주의 권혁준씨는 원래 청도에 설단사를 일으킨 것이 경주와 영천의 후손들이었다는 주장을 펴며 그 일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격상키 위해 안동의 대중회로 넘어간 것이라 하였다. 경주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능암계(陵巖契)가 있는데 이는 능동과 봉암 양소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이 능암계는 원래 청도에 설단을 하고자 모은

종자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인데, 설단시 현성하고 남은 돈을 마련해 키워 놓고 있다. 대중회에서 힘들어 못하겠으면 경주·영천종친회에서 하도록 맡기고 경기 김포에 사놓은 위토도 낭중공 명의와 뒤편으로 환원시켜 수호할 수 있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하였다.

권오홍씨는 현재 중앙종친회의 감사로서 그 정기총회에서 소신 건의를 했던 경과를 일장설파하여 좌중을 숙연케 하고 서울의 관악에서 온 권오수씨

는 자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경주와 영천에서 분발하면 서울에서도 적극 호응할 것을 약속했다.

성군관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로서 전문학자이고 고향이 경주의 국당(菊堂) 문중으로서 마침 경주고도보존 전문위원이기도 한 권택진씨는 이단 저지운동과도 별도로 대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낭중공 유적 및 권릉의 문화재 지정 문제는 청도군청 및 향토사학자 등 지역 전문가와 자문협의를 하여 재고하고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지정문화재가 안되었다고 해서 경솔히 철폐할 것이 아니라 시군문화재로서의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이른바 ‘비지정문화재’로서 유지보존할 길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재사등의 건축물은 그 양식 등을 감안하고 건설 후의 소정기간이 지나야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조급히 철거하거나 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릉이라는 고층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술조사는 관내의 대학 박물관에 의뢰하고 산하의 최씨문중과 주민간 협의를 구하여 지표조사(地表調査)를 먼저 하고, 다음에 비용을 감안해가며 발굴조사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개 이러한 내용의 권택진 교수의 의견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낭중공 유적과 단소를 수호한다는 결의문에 서명하고 난상토론의 회의를 마쳤다.

전참석자가 강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파하여 화봉회원은 전세버스편으로 막바로 귀경하고, 따로 영천 권영성씨의 승용차편으로 권홍섭·권오흥·권택진 교수와 필자는 그곳을 작별하여 청도 운문면 정상리의 낭중공 단소와 권릉을 향했다. 봉하리의 봉암재사와 유허비각 등 유적을 둘러보고 정상리의 단소와 권릉에 이른 일행은 그곳 단소와 권릉 고층의 웅장한 형국에 찬탄을 하여 마지 않았다. 특히 권릉을 처음 봉심하게 되었다는 권홍섭

씨는 우선 한몸에 느껴오는 전율로 이곳이 우리의 2세조 낭중공의 유택임을 감지할 수가 있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귀로에는 영천에 들러 권영성씨가 내는 후한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오후 7시 14분의 무궁화호 열차를 영천역에서 타고 동대구역에 이르러 KTX로 환승하여 서울역에 닿으니 9시 50분이었다.

<사진·글 권炳逸>



▲ 청도의 봉암재사 편액 아래 대책위의 4인이 섰다. 왼쪽부터 권홍섭·권택진·권영성·권오홍씨.



▲ 정상리 단소 우상록의 권릉 앞에 선 권홍섭씨가 그 전망을 조감하고 있다.